

『팔월의 빛』에 나타나는 조 크리스마스의 모호성

조 동 인 *

I.

인간주체는 중심과 주변의 인식 틀거리에서 주변성을 변화내지는 극복시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만약 주변성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극복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해당 주체나 요소의 위상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인 구별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중심과 주변의 구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일면 애매모호함을 지닌다. 중심으로도 혹은 주변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함은 중심과 주변의 구별을 없앤 경계넘기 라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의미를 지닌다. 윌리엄 포크너의 『팔월의 빛』 (*Light in August*)¹⁾(1930)에서 담지되는 조 크리스마스(Joe Christmas)가 지닌 흑인과 백인의 모호함 내지는 애매함은 주변성을 극복하는 경계넘기의 좋은 예가 된다. 본 논문은 조 크리스마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백인과 흑인의 흐려진 경계와 모호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팔월의 빛』의 중심인물인 조 크리스마스는 백인이라고 여겨지면서도

* 인하공전 교수

1) *Light in August*는 LA로 표시하고 이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페이지를 첨부하여 본문 속에 넣음

“흑인의 피가 섞인”(niggerblooded)(LA 103) 것으로 추정되는 존재이다. 그가 조앤나 버든(Joanna Burden)을 살해하기 전 그의 앞에 펼쳐져 있던 길은 한쪽으로는 마을을, 다른 방향으로는 언덕을(LA 107-8) 향하고 있었다. 길의 서로 다른 방향은 그의 정체성이 갖는 이중성과 분리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향성의 상실과 모호함을 담지한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몸은 백인성(whiteness)과 흑인성(blackness)의 이질적인 특징들이 교묘하게 공존하는 모호함마저 담고 있다. 더군다나 어두운 밤 공기 속에 드러나는 그의 벗은 하얀 몸은 그의 신체가 갖는 백인과 흑인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든다.

모호함이나 애매함²⁾은 명료함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면모로만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명료함이란 나누고 잘라내고 틀에 가둠으로써, 즉 분류하고 판단하고 구획지음으로써 이룩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전유하는 중요한 방식이지만,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계와 질서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중심 및 주변과 관련되는 위계 역시 그런 경계와 질서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되며, 또 그 경계 및 질서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까닭에 기존의 경계와 질서를 문제 삼을 때에는 이 구획과 함께 이전의 명료함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구획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이 같은 구획지음과 전유의 방식 전체를 그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자 할 수 있다.

어두운 밤에 드러나는 조 크리스마스의 하얀 몸은 백인에 의한 흑인성의 규정과 경계짓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벌거벗은 채로 세상과 맞닿아 있다. 몸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몸은 외부와 맞닿아 있고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점이다. 바깥의 물체가 몸 안으로 들어와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몸에 속해 있던 것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즉, 몸은

2) 메를리-퐁티(Merleau Ponty)의 ‘ambiguïté’는 ‘애매’(曖昧)(남수인, 류의근, 조광제 등) 또는 ‘모호’(模糊)(김화자 등)로 옮겨진다. 애매(曖昧)는 내포(內包)의 불분명함, 모호는 외연(外延)의 불분명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구별이나 용례에도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섞임의 측면을 강조하면 모호를, 의미의 불분명함을 강조하면 애매를 사용하기 쉽겠으나, 어떤 경우든 분명한 구별 이전의 특징을, 더욱 적극적으로는 그런 구별을 무화하고 넘어선다는 특징을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소통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몸이 함유하는 적극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몸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과 그것이 수반하는 애매모호함을 통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질서를 유동화 하는 데 있다. 이런 면에 대한 강조는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가 내세우는 ‘기관 없는 몸’(corps sans organes)에서도 드러난다.³⁾ 기관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기능을 하는 신체의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기관 없는 몸이란 이렇게 정해진 목적이나 틀에서 벗어난 몸을 뜻한다. 이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것은 ‘탈영토화 하는’ 몸, 다시 말해 기존의 지배적 질서와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기관 없는 몸’은 말 그대로 기관을 다 떼어낸 불모의 몸이 아니라, 거꾸로 모든 분화의 바탕이 되며 외부와의 접촉이 원활한 애매모호함을 드러내는 몸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기관 없는 몸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써서 노리는 바는, 정형화된 틀에 갇힌 고정된 사고의 비유동성을 비판한 것일 것이다.

III

『팔월의 빛』에서 잔혹한 살해 장면을 기술한 작가 포크너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비평가도 없지는 않다. 크레이그 워너(Craig Werner)는 포크너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흑인 작가들의 텍스트와 비교하면서, 포크너의 조 크리스마스에 대한 묘사가 “파괴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포크너는 “미국 흑인의 경험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42-3). 또한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은 포크너에게는 “흑인을 보는 비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472-3). 이처럼 포크너의 흑인 인물 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3) ‘기관 없는 몸’은 원래 아르토(Antonin Artaud)가 쓴 표현인데,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Logique du Sens; 1969)에서 처음 이 말을 차용하며, 가타리와 함께 쓴 『반(反)-오이디푸스』(L'Anti-Edip; 1972)에서 주요한 용어로 쓰기 시작한다.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sous la direction de Robert Sasso et Arnaud Villani, Les Cahier de Noesis n° 3, 2003, 62쪽 이하 참조.*

하지만 흑인의 문제와 흑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문제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흑인은 흑인이 지닌 피부 색깔로 인해 백인의 유형화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존재로서 백인이 규정한 틀에 의해 쉽게 타자화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흑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 흑인성”(Davis 56)으로 인해 백인의 유형화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흑인이나 백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 점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것이었다. . . . 그는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그가 흑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신도 모르는 듯 했다.”(LA 331)

조는 마을사람들이 알기로는 분명 “흑인의 피가 섞인” 존재이다. 하지만, 흑인도 백인도 아닌 불분명한 정체성의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흑인성의 보이지 않음”(Bleikasten 98)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불가해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조의 정체성의 불확실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인이 설정한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구분의 틀에 그의 피부색과 행동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모호한 특징은 “근본적인 사회의 규범과 범주에 살아있는 위협”(Ibid 98)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남부사회가 규정하는 흑백의 차별적인 범주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그는 남부사회의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의 모순성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인물이며 흑과 백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중심과 주변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주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계넘기를 보여준다.

사실 조 크리스마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진술한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이 “흑인의 피가 섞였을 것 같다”라는 추정만 할 뿐이며 그 추정이 내포하는 환상 속에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을 뿐이었다. 이러한 환상을 심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백인들이었으며 백인들도 조가 “부분적 흑인”일

거라는 뒷받침 없는 추측 속에서 그의 흑인의 피부와 흑인의 행동이 드러나길 바라왔던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그에게서 분노를 느낀 것은 그가 체제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흑인이라고 추정한 그에게서 흑인의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조에게서 보였던 앞에서 언급한 “동물적인” 혹은 “야만스런 속성”은 조라는 인물이 “상상에 의한 혼혈아”(Kartiganer 38)에 지나지 않듯이 그 당시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편견 혹은 추정 속에서 탄생한 ‘백인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가 저지른 살인을 폭력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폭력을 흑인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것 또한 백인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조가 조앤나를 살해했을 때 이미 강간을 저지른 다음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이는 흑인에 관한 백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인들은 흑인들이 “백인처녀와 백인 여자들에 대해서 욕정을 충족시키고 싶은 두근대는 가슴을”(Ibid 116-7)가지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인여자를 보면 강간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백인여자에 대한 ‘흑인의 강간 욕구설’은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심화되어 남부사회에서는 전쟁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포로써 자리잡았다(Roberts 155). 이러한 공포는 남부의 농장주들이 행했던 흑인착취로 인해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들이 남부 백인들을 보복하고자 백인여성들을 유린할 것이라는 상상이 빚어낸 허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후 해방된 흑인들을 “나쁜 흑인”으로 간주하고 “흑인야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Ibid 155). 흑인이 폭력을 저지르며 동물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남부 사회의 백인들이 전쟁이후 갖게되었던 흑인에 대한 공포심이 환상으로 변질된 결과이다.

남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전형을 꼽는다면 조의 조부인 닥 하인즈(Doc Hines)가 퍼시 그림(Percy Grimm)과 더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자신의 손자인 조를 “흑인의 피”가 섞여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던 그는 도주하다 모츠타운(Mottstown)에서 붙잡힌 조를 알아보고는 “나쁜 녀석을 죽여라”(LA 345) 하고 소리치며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조의 살해를 종용하

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하인즈의 극렬한 태도는 자신의 손자가 흑인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뚜렷한 직업도 없이 흑인들의 “자선”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흑인들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백인들의 우월성을 설파하는”(LA 343) 그의 태도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순된 측면을 드러낸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남부 백인의 대농장을 유지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노예를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남부의 농장주들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조의 살인문제를 담당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지방검사인 개빈 스티븐스(Gavin Stevens)까지도 조의 살인경위를 따져보면서 “흑인 피가 그를 우선 흑인 오두막집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나서 백인 피가 다시 그곳에서 나오게 했는데, 실은 권총을 잡게 한 것은 흑인 피였으며 그가 총을 쏠 수 없게 한 것은 백인의 피였다”(LA 449)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제시한다.

남부사회에 살았던 남부 백인들뿐만 아니라 잠시 남부에 살게된 북부에서 온 양키들과 그리고 가난한 백인들조차도 흑인 개개인마다의 성격과 특성은 무시한 채 조라는 한 흑인에 의한 백인여성의 살인 사건을 마치 흑인 전체 집단에 의한 살인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 가운데에는 평범한 양키들과 가난한 백인들 그리고 남부인들까지 있었다. . . . 그들은 이것이 익명의 한 흑인에 의한 것이 아닌 흑인전체에 의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또한 강간당한 것을 알고 있기도 했고 믿기도 했으며 나아가 소망하기까지 하였다. (LA 288)

위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북부의 양키들조차도 일부는 인종차별의 극단적인 논리를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난한 백인조차도 흑인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흑인에 대한 적대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해 백인여성이 흑인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그 여성이 성적유린도 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서 잔인함마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과는 달리 포크너는 흑인에 대해

서는 나름대로 포용력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흑인의 묘사에 있어서 포크너가 갖는 흑인에 대한 시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블라이든 잭슨(Blyden Jackson)과 같은 비평가는 포크너가 흑백의 인종차별이 가져다 주는 남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묘사했다고 말한다(39). 잭슨의 논지를 따른다면 포크너는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이 결국에는 남부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문제점이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남부인들이 주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있게 관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흑인 등장인물을 텍스트에서 취급하는데 있어 스텔링 브라운(Sterling Brown)은 그의 저서 『미국 소설 속의 흑인』(*The Negro in American Fiction*, 1937)에서 포크너와 다른 작가들과의 대비되는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흑인들의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삶을 정확하게 포착한 포크너의 관찰”(177)을 높이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제임스 스니드(James A. Snead)는 포크너가 “그의 동년배들이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 사회계층의 타파에 관한 진실”(Faulkner and Race 152)을 표현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측면은 포크너의 흑인에 대한 시선이 편협하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는 증거들이다.

또한 1949년 잔인하게 흑인 아동을 살해한 백인들이 가석방된 사건에 대해서 포크너는 인간이 지닌 생명의 가치를 백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음 희생자는 백인 아동이 되기 바란다”라는 냉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인종 차별주의적인 백인들의 비도덕성을 질타했다(*Essays, Speeches, and Public Letters* 204). 이처럼 그는 백인들 못지 않게 흑인이 지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독자와 청중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주민에게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한 공식석상의 연설에서는 그가 강조해 왔던 흑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버지니아 주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Faulkner in the University* 212). 위와 같은 포크너가 벌인 일련의 노력들은 흑인이 지닌 인권과 존엄성도 백인이 지닌 그것 들 만큼 소중함을 백인사회에 주지시키고 흑인들도 더 이상 백인에 의해 희생만이 강요되는 타자가 아님을 설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크너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의 흑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포크너의 텍스트를 너무 가볍게 읽어내는 데서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조의 불확실한 정체성과 대비하여 그의 여성 혐오적인 태도는 텍스트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의 여성혐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를 꼽자면 그가 어릴 적 고아원 커튼 뒤에서 치약을 훔쳐 먹으며 목격한 영양사와 인턴과의 충격적인 정사장면(LA 121)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New Essays* 88). 밀폐되고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졌던 성관계와 배고픈 나머지 먹어 삼킨 구토를 일으키는 치약은 ‘역겨움’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숨어서 이를 보던 조를 발견한 영양사의 “이 쥐새끼 같은 놈”, “이 나쁜 깡둥이 놈”(LA 122)이라 내 뺄는 분노에 찬 목소리는 그에게 “여성”과 “음식”과 “성”이 “인종적인 억압”과 교묘하게 얽혀 조의 정체성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백인의 시선을 조 크리스마스의 시선과 순간 동일시 해놓고 여성을 또 다른 타자화의 대상으로 만들고는 이를 주변부로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라캉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길 서구 사회에서 언어, 질서, 법, 규율, 기준, 이상, 객관성 등을 포괄하는 상징계(the Symbolic Order)는 “여성적인 것, 자연, 몸, 쾌락”에 대한 억압 위에 구축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대표하는 존재로서, 남성이 상징계로 진입하기 위해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상상계(the Imaginary Order)의 풍부함과 쾌락을 투사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이상학적 개체, “남성”과 똑같이 가부장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적인 개념(Elliott 206-8). 주체란 원래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구축되는(Woodward 9) 파생적이고 이차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조 크리스마스와의 조앤나와의 만남은 조가 양부인 맥이천을 살해하고 도피하면서 지친 그가 굶주림을 해결할 음식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LA 230). 음식은 조앤나와의 만남에서 매개물로 작용한다. 결국 그는 조앤나와 정을 통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지만 그녀의 침실로 들어서기 전에 조가 먼저 들르는 곳은 그를 위한 음식물이 차려진 부엌의 식탁이었다는 것을 고려

해 보면(LA 236, 257) 음식물이 조와 조앤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동인(動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앤나의 부엌에 들어섰을 때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알게된 이후부터 조는 모멸감을 느낀다(LA 237). 음식물의 따뜻한 온기를 느낀 조는 “깜둥이를 위한 것이군”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식탁의 음식을 내던지고 쏟아버린다. 접시에 담긴 내용물을 꼼꼼이 살펴보고는 이내 그 접시들을 모조리 깨뜨려 버린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이 “여자의 배설물”임을 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나 하고 분개한다(LA 238).

이에 대해 리차드 애덤스(Richard Adams)는 “포크너의 작품 속에서 먹는 것과 숨쉬는 것은 곧 삶을 의미하며, 질식감, 음식 거부 특히 구토 등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 혹은 삶의 거부를 의미한다”(125)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애덤스의 논의는 그 당시 남부사회에서 음식을 주로 조리하는 것이 여성이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음식은 여성과 관련이 깊고 조의 음식 거부는 다름 아닌 여성거부라는 일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앤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가 음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의 음식 거부는 조앤나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그의 거부의 몸짓인 것이다.

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스위거트(Swiggart)는 “조는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 욕구를 지닌 자신의 몸을 증오하는데, 그에게서 굶주림과 욕망은 어둠 및 악과 연계된 힘”이라고 설파하면서 “음식은 여성이 준비한 따뜻하고도 사나운 어떤 것이기에 그는 자기 배신의 감정과 더불어 서둘러서 먹게 된다”(136)고 풀이한다. 사실 음식의 따뜻한 온기와 축축함은 여성의 자궁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면모와 함께 묘사되는 어휘들, “하수구”(Sewer)(256) “습지”(Morass)(260), “배설물”(Muck)(238) 등이 갖는 축축함은 여성의 자궁에서 나오는 양수의 젖은 느낌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조가 지닌 여성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어휘들이 조가 조앤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가 소개되고 나중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의 의지가 표현되는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조가 여성의 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조는 음식이 갖는 여성적인 특징들, 음식은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성의 자궁의 축축한 성질들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과 동일시한 나머지 혐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조와 조앤나의 관계는 조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된다. 그가 조앤나에게 혐오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있어서 성도착적인 “색정증”(nymphomania)(LA 259)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와의 성관계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몸짓은 조에게 있어서는 타락으로까지 비쳐진다.

그 순간 그녀는 사나워지곤 했다. 밀착된 (공간에서) . . . 그녀의 거친 머릿결에서는 머리카락이 문어의 촉수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거친 손길과 호흡 속에 그녀는 “깜둥이! 깜둥이! 깜둥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6개월 동안에 그녀는 완전히 타락한 것이었다. (LA 260)

그녀는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 걱정적인 적극성과 거친 태도로 조를 대한다. 위에서 보듯이 “wild”라는 단어가 중복됨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그녀의 “머리카락이 문어의 촉수처럼 보인다”는 대목에서 보듯이 프란시스 피타비(François Pitavy)는 이 장면을 “뱀의 머리를 한 메두사”(71)를 연상시킨다고 밝히는데 이는 조에게 있어서 성행위가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닌 공포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녀가 성행위 도중 내뱉는 “깜둥이”라는 말 속에 조앤나는 조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흑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처음에 조가 그녀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그녀에게는 “남자와 같은 근육”과 “남성적인 사고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LA 235). 즉, 그녀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가 혐오하는 여성적인 속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그녀에게서 “여자의 흔들림”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옷 속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떠올렸던 회상처럼 그녀는 부끄러움이나 숨김과 같은 여성적인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그녀를 통해 “내가 여자이고 그녀가 남자인 것 같다”(LA 235)라는 조의 독백은 그녀가 여성이면서도 남성과 같은 속성을 지닌 양성적인 존재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그녀의 속성을 블라이카스텐은 “조

가 자신의 인종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동요하는 것처럼 그녀도 성적 정체성이 바뀐다”고 평가한 점을 보면(*New Essays* 91) 조 뿐만 아니라 조앤나 조차도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조앤나가 조에게 살해되는 비극의 한 원인은 조앤나 조차도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에게는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적 집착을 보이는 조앤나가 조를 묶어둔 심산으로 “아이를 가졌다”(LA 266) 라는 거짓말로 인해 조가 조앤나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조가 조앤나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감정을 느낀 것은 조앤나가 조에게 흑인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종용하면서 조가 흑인임을 밝힐 것을 요구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흑인]들에게 말해요.” 그녀가 말했다.

“깜둥이들에게 나도 깜둥이라고 말하란 말야?” 그러자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주 조용했다. 그것은 늙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 . .

당신 늙은군. 예전에는 몰랐는데. 늙은 여자야. 머리에는 흰머리가 있고.”

(LA 277)

그녀의 흰머리가 눈에 띄고 그녀가 늙은 여자로 보이는 것은 그녀가 조에게 흑인임을 공공연히 밝힐 것을 강요하는 순간부터이다. 예전과는 달리 그녀가 “늙은 여자”(An old woman)라는 표현에서처럼 이질적인 존재로 보이는 이유는 그녀가 그에게 그의 정체성을 밝힐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앤나의 입장에서는 흑인 사업을 하려면 조가 학교를 나와야 하고 흑인학교에서는 조가 무료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는 조가 흑인임을 밝혀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실 조앤나의 조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태도는 그녀가 처음 조를 만났을 때 치켜든 촛불(LA 266)에서 그 상징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조가 음식을 구하러 조앤나의 집에 잠입했을 때 조와 마주친 순간 어둠 속에서 “그

녀는 촛불을 들고"(she with the candle)(LA 266) 있었다. 촛불은 밝음이다. 만약 밝음의 특징이 빛이 갖는 백색의 속성으로 인해 백인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촛불은 밝음이고 곧 백인성이다. 그녀가 치켜든 촛불은 조를 향해 빛을 발하며 조의 정체성을 밝히려 든다.

이는 조앤나가 조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강요하는 모습과 일맥 상통한다. 정체를 밝히려고 들이대는 촛불처럼 조앤나에 의한 조의 정체성 발설의 요구는 조에게는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 흑인인지 백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를 이미 흑인으로 규정하고 흑인임을 공표하라고 말하는 조앤나의 태도는 조를 흑인으로 타자화시키고 흑인처럼 행동할 것을 압박하는 백인의 담론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는 외적인 측면으로는 흑인사업을 통해 소외된 흑인을 구제하자는 명분을 지닌 "성숙한 지혜"(mature wisdom)를 가지고 있는 여자이다(Millgate, "Faulkner's *Light in August*" 74). 하지만 그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크리스마스에게 기도를 위해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는 그녀의 모습은 왜곡된 종교적 신념 속에 조를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잔혹스러운 맥이천의 형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조에게 "둘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LA 278)고 말하고는 총을 뽑아든(LA 283) 그녀는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그녀에게서 조가 도피를 감행하는 것은 조의 여성혐오가 한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녀가 여는 다른 백인들처럼 그를 흑인이라 규정하고 타자화시키려 하는데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IV

조는 탈출을 통해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넘기를 시도한다. 그가 5세때 고아원에서 자라다 양부모인 맥이천에게 입양되어 유년기를 보내지만 열일곱 살 때 맥이천의 집을 탈출한다. 그후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30세 무렵 조앤나의 집에 찾아들게 되고 결국에는 조앤나에게서도 벗어나고 만다. 조가 탈

출했던 곳은 저마다 백인의 집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그의 탈출구는 “정체 불명”(window)이었다. 일면, 텍스트에서 보이는 “창문”은 조에게 있어 다른 세계를 내다보기 위한 렌즈이면서 단절과 출입을 의미한다. 제재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브라운을 바라볼 때 조는 “동쪽 창문”을 통해서 그를 인식한다(LA 110). 창문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조가 브라운을 바라볼 때 사이에 놓여있는 창문은 조와 브라운이 다른 세계의 존재임을 상징한다. 비록 동료이기는 하나 브라운은 백인이고 조는 혼혈아로 여겨지고 이 창문을 통해 브라운은 백인의 세계에 있는 존재이고 조는 정체불명의 혼혈아의 세계에 놓여있다. 또한 브라운은 포상금을 노리고 조앤나의 살해범으로 조를 보안관에게 밀고함으로써 그를 배신했다는 의미에서 창문은 이미 브라운과 조 사이의 갈라지고 떨어진 틈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처럼 창문은 조에게 있어서 조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며 창문을 중심으로 조가 머무는 공간과 바깥의 세상이 이질적임이 암시된다.

하지만 창문은 창을 중심으로 유리되며 경계지어진 안과 밖 내지는 중심과 주변부를 이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창문은 빛을 투과 시킨다. 경계 밖의 빛은 창문을 통해 단절된 틈새 즉 안쪽으로 향할수 있다. 또한 안에 있는 빛이 반대로 밖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도 창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처럼 창문은 그 자체가 안과 밖에 놓인 경계이지만 빛을 투과시켜 안과 밖이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점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종교적 교리와 숨막히는 엄격함으로 조 크리스마스를 억눌렀던 맥이천으로부터 탈출하는 장면에서 조 크리스마스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감으로써(LA 202) 주변부에 머물렀던 자신의 몸을 중심부로까지 확장시킨다. 이는 맥이천이라는 백인이 지배하던 공간으로부터의 도피 즉, 백인성으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다시 창문을 통해 백인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오클라호마, 미주리, 멕시코, 시카고,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를 전전하다 체퍼슨으로 들어와 그가 음식을 찾기 위해 숨어들어간 부엌은 다름 아닌 백인 여성 조앤나의 집이며, 그는 그녀의 집안을 “창문을 통해 기어들어갔다”(LA 230).

백인의 집에서 벗어났던 그가 다시 백인의 집을 찾아들어난 것은 “창문”을 통해서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창문은 그 자체가 경계이지만 빛이라는 대상

이 투사되고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경계를 없애기도 한다. 조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창문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그 자신이 안과 밖, 중심과 주변부의 경계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다. 즉, 창문을 넘어선 세상이 중심일수도 있고 창문 안의 영역이 주변부일수도 있다. 반대로 창문 밖의 영역이 주변부일수도 있고 창문 안의 세상이 중심부일수도 있다. 사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개념은 창문을 통해 더 모호해 진다. 빛은 창문을 넘어서 안과 밖, 중심과 주변부에 걸쳐 있거나 혹은 한 영역과 다른 영역에 섞여 있기 때문이다. 조 크리스마스는 창문을 넘나들으로써 중심과 주변의 경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백인과 흑인의 이분법적인 구별짓기는 그의 창문 넘기에서 모호해 진다. 백인들이 흑인 내지는 흑인으로 추정되는 존재인 조 크리스마스를 타자화시키고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어 내려고 하지만 그는 결코 중심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백인 행세를 하며 중심부의 존재인 체 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이 흑인으로 불리지 않는 것에 화를 내기도 하였다.

가끔씩 그는 생각하곤 했다. 백인들과 한판 싸움을 벌이고 싶어
서 백인들을 놀리거나 속이면서 자신이 흑인이라 불리게끔 했으며,
백인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였다. 그런
데 이제는 그를 백인이라 부르는 흑인과 싸우게 되었다.(LA 225)

고 묘사될 만큼 그는 자신이 중심부의 존재로 여겨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흑인임을 자처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이며 흑인과 백인의 구분짓기는 그에게는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는 조앤나가 자신을 흑인으로 규정하고 타자화시켰기 때문에 그녀가 지닌 억압하는 백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조가 조앤나의 집을 나가버리기만 하면 그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굳이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아도 조가 조앤나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의 조앤나 살해 사건은 일면 심리적인 영역에서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이 담지된다. 살인은 인간의 공격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Kernberg

35). 사실 자아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향은 자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Ibid 35).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면 공격성향이 두드러지고 공격성향이 강렬해지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조의 살해사건은 잘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의 살해 장면은 ‘기관없는 몸’의 유동성을 연상시킨다. 사실 조 크리스마스의 조안나 버든의 살해 장면은 끔찍하면서도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는 백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흑인의 백인여성 살해 장면이라는 점에서 잔혹함이 강조되는 듯하다. 그녀의 살해 장면에 주목해 보면 그는 마치 조앤나 버든의 신체조직에서 기관을 떼어내듯 그녀의 목을 자른다. 목이 잘린 몸은 정상적이지 않은 ‘탈영토화 된 몸’이다. 이는 서구 백인사회의 흑인을 주변부에 밀어넣고 타자화 시키려는 끊임없는 억압의 틀을 깨뜨리고자 하는 조 크리스마스의 적극적인 해방행위이다. 또한 목이 없는 몸이 지닌 애매모호함과 그에 따른 경계와 구분의 붕괴점은 백인사회의 고착화된 질서가 유동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앤나 버든의 살해 장면을 폭력성과 잔인성에만 천착한다면 이는 백인도 흑인도 아닌 흑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엽기적인 살인극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조 크리스마스의 면모에서 폭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의 살인은 백인의 사고논리에서 비롯된 흑백의 구분 짓기에 일말을 가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 크리스마스는 중심과 주변부의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이며 또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늘 안개 속에 싸인 듯하며 자신을 바라보아도 “흐릿할”(dim)(LA 110)뿐이다. 검은 웅덩이 바닥(a bottom of black pit)을 들여다 보아도 자신의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주위의 “모호한”(vague) 사물들은 “가로등”(street lamp)아래에서 검은 생명체를 띤 채 검은 호흡을 내 뿔 뿐이다(LA 114). 조의 모습은 분명히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게서는 밝음(lightness)과 어둠(darkness)의 이미지가 섞여 있다. 그의 몸에는 흑인과 백인의 중첩된 이미지가 있는 것이다. 조앤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인 부부와 같은 관계로 전개된 후 그녀가 준비한 저녁식사를 위해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 전 갈아입은 “흰색 셔츠와 검은 주름 바지”(the white shirt and the dark creased trousers)(LA 257)는 그의 몸이 가지고 있는 흑과 백이 섞여있음을 상징한다. 조앤나의 집으로 들어 오기전 그가 이곳 저곳의 도시들을 전전하다 만난 한 흑인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주의 깊게 본 자신의 “하얀 가슴 흉곽선”(the white chest arch) 속으로 들이마시는 “어두운 향기와 어두움 그리고 불가해한 사고와 흑인의 존재”(the dark order the dark and inscrutable thinking and being of negroes)(LA 225-6)는 백인과 같은 그의 몸에 흑인의 속성이 드리워짐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리 제킨스(Lee Jenkins)는 조가 “분열된 자아”(split eg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203). 사실 조의 분열된 모습 속에는 “불확정성”(uncertainty)과 “불안정성”(insecurity)이 내포되기도 한다(Kernberg 37).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의 혼돈은 대상관계의 혼돈과 관계”(Kernberg 17)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자아”(ideal ego)의 설정은 요원해질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흑과 백의 자아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혼재된 자아는 흔들리는 자아상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이상적인 대상을 찾는데 있어 좌절을 당하며 이는 “죽음 충동” 내지는 “죽음의 나르시시즘”⁴⁾(narcissism of death)을 가져다주는 한 동인이 된다.

V

조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충족이다. 그는 퍼시 그림(Percy Grimm)에 의해 거세를 당하여 죽는다. 그의 거세된 몸은 “기관 없는 몸”이

4) 앙드레 그린(André Green)은 프로이트가 『쾌락 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에서 밝힌 “삶 충동”(life drive)과 “죽음 충동”(death drive)을 나르시시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은 “삶의 나르시시즘”(the narcissism of life)과 “죽음의 나르시시즘”(the narcissism of death)으로 이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Whitford 29 재인용). 즉 그는 프로이트의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을 “삶의 나르시시즘”과 “죽음의 나르시시즘”으로 파악한 것이다.

며 인간의 온전한 몸의 형태에서 소외된 것 같지만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난 “탈영토화 된 몸”으로서 백인사회의 지배적 질서와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든다. 그는 죽음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계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항복도 저항도”(neither surrendered nor resisted)하지 않았고 “저항 없이 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made his plans to passively commit suicide)(LA 443)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타살에 의존한 자살의 측면은 백인의 관점에서 타인으로 향하였던 “공격성향”(Kernberg 35)이 자신에게로 집중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의 경계허물기이다. 그는 죽음을 통해 삶의 경계를 지나 죽음의 영역에 도달한다. 그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생명체의 수명이 다했음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잔상은 칼을 들이대며 거세한 퍼시 그림의 살의(殺意)를 함유한 인식 속에서 살아 있었으며 죽은 그를 논할 백인 군중속의 의식에도 녹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의 죽음은 모호한 잔영으로 남아 살아 있는 중심부의 존재들, 그들의 몸속에 섞여 의식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에 조 크리스마스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어 뜨리며 서구의 흑과 백의 이분법적 논리의 틀거리를 타파하는 “승리감을 맛보는”(triumphant)(LA 464) 주변부의 “강렬함”(crescendo)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다.

참 고 문 헌

- Baldwin, James. *The Price of the Ticket*. New York: St. Martin's, 1985.
- Bleikasten, André. "Light in August: The Closed Society and Its Subjects." *New Essays on Light in August*. Ed. Michael Millgate. Cambridge UP., 1987.
- Brown, Sterling. *The Negro in American Fiction*. 1939. New York: Atheneum, 1969.
- Davis, F. James. *Who is Black? One Nation's Definitio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91.
- Derrida, Jacques.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Trans. Pascale-Anne Brault and Michael B. Naas. Bloomington: Indiana UP, 1992.
- Elliot, Patricia. *From Mastery to Analysis: Theories of Gender in Psychoanalytic Feminism*. Ithaca: Cornell UP, 1991.
- Faulkner, William. *Light in August*. New York: Vintage Books, 1985.
- _____. *Essays, Speeches and Public Letters*. Ed. James B. Meriwether. New York: Random House, 1965.
- _____. *Faulkner in the University*, ed.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New York: Random House, 1959.
-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ity :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7-58*.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59.
- Hirshleifer, Phyllis. "As Whirlwinds in the South: An Analysis of *Light in August*;" William Faulkner's *Light in August: A Case Book* ed. Francois L. Pitav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2.
- Jackson, Blyden. "Faulkner's Depiction of the Negro." *Studies in English*, 15.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78.

- Jenkins, Lee. "Nobody Laughs in *Light in August*." *Faulkner and Psychology*. Eds. Donald M. Kartiganer & Ann J. Abadi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1.
- Karl F. Zender, *The Crossing of the Ways: William Faulkner: The South and the Modern World*. New Brunswick and London: Rutgers UP, 1989.
- Kartiganer, Donald. M. *The Fragile Thread: The Meaning of Form in Faulkner's Novels*.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 1979.
- Kernberg, Otto.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1975.
- Levinas, Emmanuel. *Ethics and Infinity*. Trans. Richard A. Cohen. Pittsburgh: Duquesne UP, 1985, 1982.
- Materson, James. *Psychology of the Borderline Adult*. New York: Bruner/Mazel, 1976.
- Millgate, Michael. "Faulkner's *Light in Augus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Light in August*. David L. Minter.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9.
- Peter Swiggart, *The Art of Faulkner's Novels*. Austin: Texas UP, 1966.
- Pitavy, François. *Faulkner's Light in August*. Trans. Gillian E. Cook. Bloomington : Indiana UP, 1973.
- Roberts, Diane. "*The Night Sister*." *Faulkner and Southern Womanhood*. Georgi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4.
- Said, Edward W. *Orientalism*.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8.
- Snead, James A. "*Light in August* and the Rhetorics of Racial Division." *Faulkner and Race* Eds. Doreen Fowler and Ann J. Abadi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86.
-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ree Women's Text and a Critique of

- Imperialism," *Frankenstein*. Ed. Fred Bottig. London: Macmillan, 1995, 235-60.
- Vickery, W. Olga. "The Shadow and the Mirror : *Light in Augus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Light in August. Ed. David L. Minter.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69.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New York: Scribners, 1930.
- Williamson, Joel. *The Crucible of Race : Black/White Relations in the American South Since Emancipation*. New York: Oxford UP, 1984.
- Woodward, Kathryn. *Identity and Difference*. Open University. London: Sage Pub., 1997.
- Young, Robert.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NY: Routledge, 1990.

Abstract

Ambiguity of Joe Christmas in *Light in August*

Cho, Dong-in (Inha Technical College)

This study is to examine ambiguity of Joe Christmas, the main character, in *Light in August* which is one of the greatest novels by William Faulkner. Ambiguity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factor of a novel in a sense that it can create more diverse images and discourse in a text. It also has a perilous factor which can lead the readers into the realm of mis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and discourse. For the readers with a critical view in the text reading, the feature of ambiguity would be the asset to enhance the diversity of reading of the characters and contexts.

In the reading of the novel readers can glance at the dual or polar, sometimes contrastive characteristics of Joe Christmas but mostly vague in the novel. His nebulous and withdrawn identity produces the effect of going beyond the distinction of center and margin or the differentiated realms of center and margin. The identity of his fluidity freely comes and goes over the established and confined line by floating boundaries between others and subjects.

He is the symbolic image of transfusion between the black and white. His bloodline is not easily revealed due to his unclear ancestry. Consequently ambiguity of Joe Christmas is interpreted as the mechanism to tear down the establishment of center and margin, and the realms of others and subjects. Even his death involves more extensive and transcendental characteristics of trespassing between center and margin in

that his emasculated body signifies “the body without organs” which can be the basis of subverting or floating the firmly settled recognitive frame of occidental society.

Key Words: ambiguity, race, center, margin.